

리아호나

하나님의 딸들을
그분의 신권 권능에
연결함, 34쪽

힘든 시기에 자신에게 할
세 가지 질문, 12쪽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작,
16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이탈리아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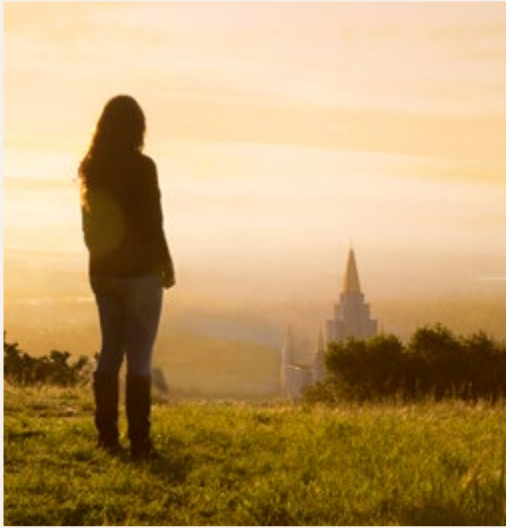
2019년 3월 10~12일에 이탈리아 로마 성전이 헌납되면,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 특히 이탈리아 성도들이 무척 기뻐할 것이다. “영원한 도시”(로마의 별칭—웁긴이)에 주님의 집보다 더 의미 있는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은 로마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성전은 (활동실과 대회 시설을 갖춘) 다용도 집회소, 방문자 센터, 가족 역사 센터, 의식 참여자 숙소를 포함하는 종교 및 문화 중심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곳의 건물들은 모두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선교 사업은 1850년에 시작되었지만, 반교회 활동과 엄격한 법적 요건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다. 교회가 마침내 선교 사업을 재개하도록 승인받은 것은 1964년이었다. 1933년,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2012년에 교회는 “국가 협력체”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서 더욱 자유롭게 선을 많이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101개의 집회소에 약 27,000명의 후기 성도들이 모인다.
-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이 2010년 이탈리아 로마 성전 기공식을 감리했으며, 로마의 부시장도 이 기공식에 참석했다.
- 이탈리아에는 2개의 선교부가 있다. 그 명칭은 각각 이탈리아 밀란 선교부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이다.





하나님의 딸들을 그분의
신권 권능에 연결함

바버라 모건 가드너

34



신권에 관해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과 그 이후에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경전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 특히 선교 사업과 신권에 관한 구절들이 여성인 내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고 종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지금, 저는 신권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34쪽에 나오는 제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몇 년간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신권을 더 잘 이해하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권세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¹

“지식이 영감을 불러 넣는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저는 신권을 공부하고 그것에 관해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신권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마음을 열고 신권에 관한 영원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호에서 신권에 관해 더 많이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권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기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 특히 성전에서 합당한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수혜자가 되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바버라 모건 가드너

주

1.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9쪽.



성역의 원리:
자연스럽게 간증을
전하는 방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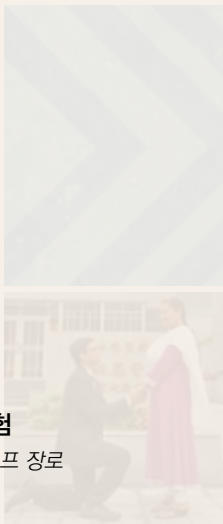


새로운 학습법을 배워 봅시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26

필멸의 삶이라는 모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16



- 5 **신권 권세의 근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신권을 지니는가.
- 6 **신앙의 초상: 제이슨 왕과 재키 왕—중국 홍콩**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 8 **성역의 원리: 더 자연스럽게 간증을 전하는 방법**

단순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간증을 전하는 것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 12 **평안과 힘의 원천**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다른 힘의 원천에 의지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 있다.
- 16 **필멸의 삶이라는 모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우리 삶의 다양한 점들이 지금 당장은 연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그 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 26 **와서 나를 따르라: 새로운 학습법을 배워 봅시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복음을 더 잘 배우고 가르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원리.
- 30 **후기 성도의 소리**

의자를 펴고 접는 일, 일터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림, 어둠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다.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리는 차량.
- 34 **하나님의 딸들을 그분의 신권 권능에 연결함**

바버라 모건 가드너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짧은 기사



표지
사진: 맷 라이어

섹션

청년 성인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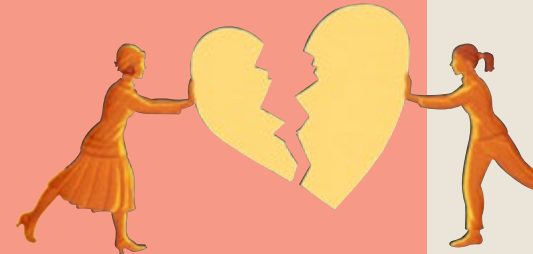
성전 성약을 더 잘 준비하고, 이해하고, 지키는 법을 알아본다.



청소년

50

가족 역사를 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작은 기적을 알아차리는 법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을 것이다!



어린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좀 더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알아본다.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lds.org에서

- 최신 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와 동영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 닿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은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lds.org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온라인 전용 기사



로마 성전 방문자 센터의 스테인드글라스

헤더 클래리지 및 차켈 위틀레이

이탈리아 로마 성전 방문자 센터의 스테인드글라스 벽화를 만든 수석 미술가가 이 작품의 중요성과 그에 담긴 비유에 관해 설명한다.



독신들이 성전 인봉에 참여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앨릭스 휴기

인봉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독신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모든 회원에게 영감 어린 경험이 된다.



성전에 가도 관참을까?

자라িয়া 이니스

바베이도스의 한 청년 성인은 자신이 압박하지 않아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9년 3월 호, 제56권, 제3호
리아호나 1860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올런드, 다이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드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렛 더블유 쿡,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다 펠코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슈턴, 켈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유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랜디 다 펠코,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처, 에릭 더블유 코우피슈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번
관리 편집자: 애덤 시 윌슨
관리 부편집자: 라이언 카
출판 보조: 프란시카스 올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메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쟈슨,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쉐인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롱니, 민디 셸루, 차켈 위틀레이, 메리사 위드슨
편집 인턴: 앨릭스 휴기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루스, 패미 피 앤드라스, 맨디 벤들리, 시 킴벌 보드,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폴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예말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나폴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메리사 스미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린 에더,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닐슨, 데렉 리처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6호, 제56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성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시모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나라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관련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rch 2019 Vol. 43 No. 3.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신권 권세의 근원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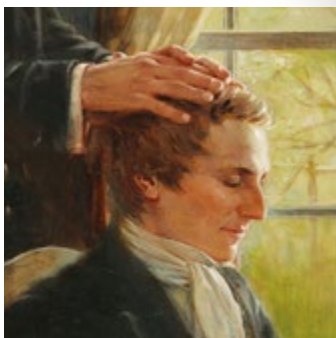
권이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신권을 주신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8쪽 참조)* 주님께서서는 아담의 시대 이후로 당신이 택하신 종들에게 신권을 주셨다. 신권은 안수에 의해 합당한 남성에게 부여되고 그러한 의식들은 기록되므로, 오늘날의 신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신권 권세선을 따라가면 조셉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1.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에게 신권 권세를 부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참조)*

2.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 몇 주가 지난 후, 고대의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교리와 성약 27:12; 128:20;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sel. Joseph Fielding Smith [1976], 81, 101 참조)*



3. 후기의 사도들과 지도자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합당한 남성들에게 신권을 부여했으며, 그들은 선지자 조셉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합당한 남성들에게 신권을 부여했다. 그런 식으로 신권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신권의 권세선

여러분의 신권 권세선을 알고 싶다면, PLA라는 제목으로 lineofauthority@ldschurch.org에 이메일을 보낸다.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받을 수 있음)

신권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34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분의 신권 권능에 연결함”을 살펴본다.

신권 열쇠

신권 열쇠는 하나님께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지상에서 당신의 신권 사용을 지시하도록 주신 권세로, 여기에는 신권이

어떻게 한 신권 소유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와드의 신권 열쇠를 지닌 감독만이 와드에 있는 남성이나 청년이 아론 신권을 받도록 승인할 수 있다. 1836년 4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로부터 중요한 신권 열쇠들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





제이슨 웡과 재키 웡

중국 홍콩



성별에 따른 역할에 관한 견해는 문화마다 매우 다양하겠지만, 신혼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어려움은 보편적인 것 같다. 제이슨과 재키는 함께 노력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레슬리 넬슨, 사진 작가

제이슨:

저는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재키는 무척 바빴고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키: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제이슨: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완전히 끝마칠 수 있고, 또 서로 함께할 수도 있어요.

재키:

저녁에도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런 다음 기도하고 경전을 읽은 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축복이 되었어요.

추가 정보

러셀 엠 넬슨 회장이 lds.org/go/031906에서 해외 왕국의 결혼이 주는 축복에 관해 간증한다.

결혼과 가족을 강화하는 다른 자료를 lds.org/go/031907에서 찾아본다.

lds.org/go/18의 미디어 자료실에서 "신앙의 초상"에 관하여 더 찾아본다.

더 자연스럽게 간증을 전하는 방법



성역은 간증을 전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때, 형식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간에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성약을 맺었다.(모사이야서 18:9) 간증을 전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일의 한 부분이며, 성신이 임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감화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증, 즉 영에 의해 생겨나고 성신에 의해 확인된 진정한 간증은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¹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 두렵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기도 하다. 간증은 금식 간증 모임에서나 또는 공과를 가르칠 때나 나누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

것이다.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정한 단어와 어구를 종종 사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이해하면, 간증을 나눔으로써 우리와 다른 이들의 삶에 더 자주 축복이 임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언이다.

단순하게 말한다

간증을 반드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야 할 필요는 없다. 간증은 우리가 참됨을 알고 있고 또한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에서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웃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단상에서 나누는 여느 간증과 다를 바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권능은 미사여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확인해 주는 성신에게서 온다.(교리와 성약 100:7~8 참조)



구주의 모범

사마리아를 지나며 피곤해지신 구주께서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시는 동안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다. 그분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을 기회로 삼아,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수와 영생에 관해 간증하셨다.(요한복음 4:13~15, 25~26 참조)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에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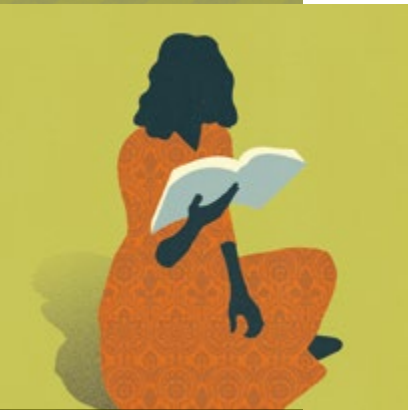


우리가 기꺼이 간증을 나누고자 한다면, 일상적인 대화에 간증을 곁들일 수 있는 기회는 사방에 널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이다.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묻는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교회에 참석했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얻고 왔어요.”
-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된 누군가가 “정말 안됐군요”라고 말하며 동정심을 보인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헤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도와주셨거든요.”

- 누군가가 “이 끔찍한 날씨가 빨리 좀 좋아져야 할 텐데”라거나,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라거나, “어휴, 여기 차 막히는 것 좀 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모든 게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준비한다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베드로전서 3:15)

우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해 본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우리는 삶에 성신을 불러들이고, 의로운 생활을 통해 매일 간증을 강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도록 기회를 열어 주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하이럼 스미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내 혀가 풀리리라.”(교리와 성약 11:21)

두 번째로, 준비한다는 것은 그날 또는 그 주를 미리 헤아리며 간증을 나눌 기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믿는 바를 나눌 기회가 어떻게 생길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서로 이야기한다. 누군가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시련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고

그분께서 그들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련 가운데 우리를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4:14) 우리가 시련을 겪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간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구주와 그분의 교리에 집중한다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지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의 계획은 구주의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을 회복했으며, 몰몬경은 우리의 간증이 참되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 진리를 전할 때, 영이 임하여 우리가 말한 것이 참됨을 증거해 준다. 벨라드 회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간증을 전할 때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²



단순한 간증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의사로 일하던 시절에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나서 한 간호사에게서 질문을 받았던 경험을 전했다. “박사님은 왜 다른 외과 의사들처럼 하지 않으시죠?” 그녀가 알던 일부 외과 의사들은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가 따르는 수술을 할 때 쉽게 화를 내며 상스러운 말을 했다.

넬슨 박사는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몰몬경이 참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간호사와 그녀의 남편은 몰몬경을 공부해 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넬슨 회장은 이후 그 간호사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사도로 갓 성임받은 넬슨 회장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던 중에 바로 그 간호사와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분의 단순한 간증과 몰몬경의 영향력으로 인해 개종했으며, 또한 80명의 사람들이 개종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들려주었다.³

행하라는 권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간증이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기 위해 이 제안들 또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



주

1. 엠 러셀 벨라드,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01쪽.
2. 엠 러셀 벨라드, “순수한 간증”, 41쪽.
3. In Jason Swensen, “Be Ready to Explain Your Testimony Using the Book of Mormon, President Nelson Says,” Church News section of LDS.org, Feb. 6, 2018, news.lds.org.

“성역의 원리” 기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며, 성역 방문 시 메시지로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성역 대상자들을 알아 가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성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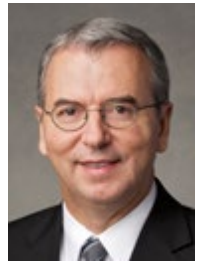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iahona.lds.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화평하고
쾌활하며
강인할 수
있는가?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평안과 힘의 원천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서 했던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베네수엘라 성도들 가운데서 봉사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교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라를 자주 방문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후기 성도들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경험

베네수엘라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식 헌금 기금과 복지 및 자립 프로그램 등을 통해 궁핍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슬퍼할 만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자주 미소를 지으며,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베네수엘라 교회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더욱 강인해졌으며 미래를 위해서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을 위해, 구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강해져야 하며, 그들은 실제로 강합니다. 그들을 보면 힐라맨의 이천 청년 용사들이 떠오릅니다. 비록 수는 적으나, 그들은 “용기[에] ... 있어 심히 용맹스”럽습니다.(앨마서 53:20~21 참조) 주님께서는 베네수엘라에서 강인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지도자의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과 미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느끼는 평안

이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화평하고, 쾌활하며, 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 중 다수가 점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지니는 권능에 의지하며, 성신에게서 위로와 도움과 힘을 얻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짐은 가벼워지고, 그들의 슬픔은 가시며, 고난 중에도 그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회원들은 몰몬경 속의 엘마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다음과 같은 일을 현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모사이아서 24:15)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

저는 베네수엘라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저의 간증이 굳건해졌습니다. 엘마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베네수엘라 성도들은 강해졌으며, 그들의 늘어난 역량만큼 그들이 짊어지는 짐도 가벼워졌습니다. 구주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께 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쉼을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진보하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구주께서는 그러한 위안과 힘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베네수엘라 성도들은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자주 미소를 지으며,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베네수엘라 성도들이 굳건히 견디는 한 가지 방법은 2013년에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카라카스에서 말씀했을 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얻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1:28~30 참조) 이 선량한 회원들은 주님의 힘으로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시련의 결과로, 그리고 그들이 구주와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들 각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들]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 되었습니다.(모사이아서 3:19)

요약하자면,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시련을 통해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1~12)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괴롭히는 정서적 환난과 고통, 불평등과 불공평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 여러분이나



동물들이 멍에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우리는 그분이
지니신 구속하고
가능하게 하는 권능에
연결된다.

제가 약해졌을 때 이렇게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이해하랴, 어느 누가 알아줄까?’ 어쩌면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하게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서 우리 짐을 지시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분은 최후의 값을 치르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완벽하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습니다.”(“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9쪽)

베드나 장로님은 이어서 다음 성구를
인용하셨는데,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에 저의 간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도 또한 우리가 구주의 사랑
가득한 품에 안기어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압니다. 구주께서
지니신 구속하고 가능하게 하는 권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소망, 평안,
힘, 위안, 재능, 영감, 그리고 우리가 이생의 여정을
헤쳐 나가고 성공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강력한 근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8)

우리 삶에 적용하기

우리는 이 힘의 근원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필요한 도움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평안과
힘의 근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만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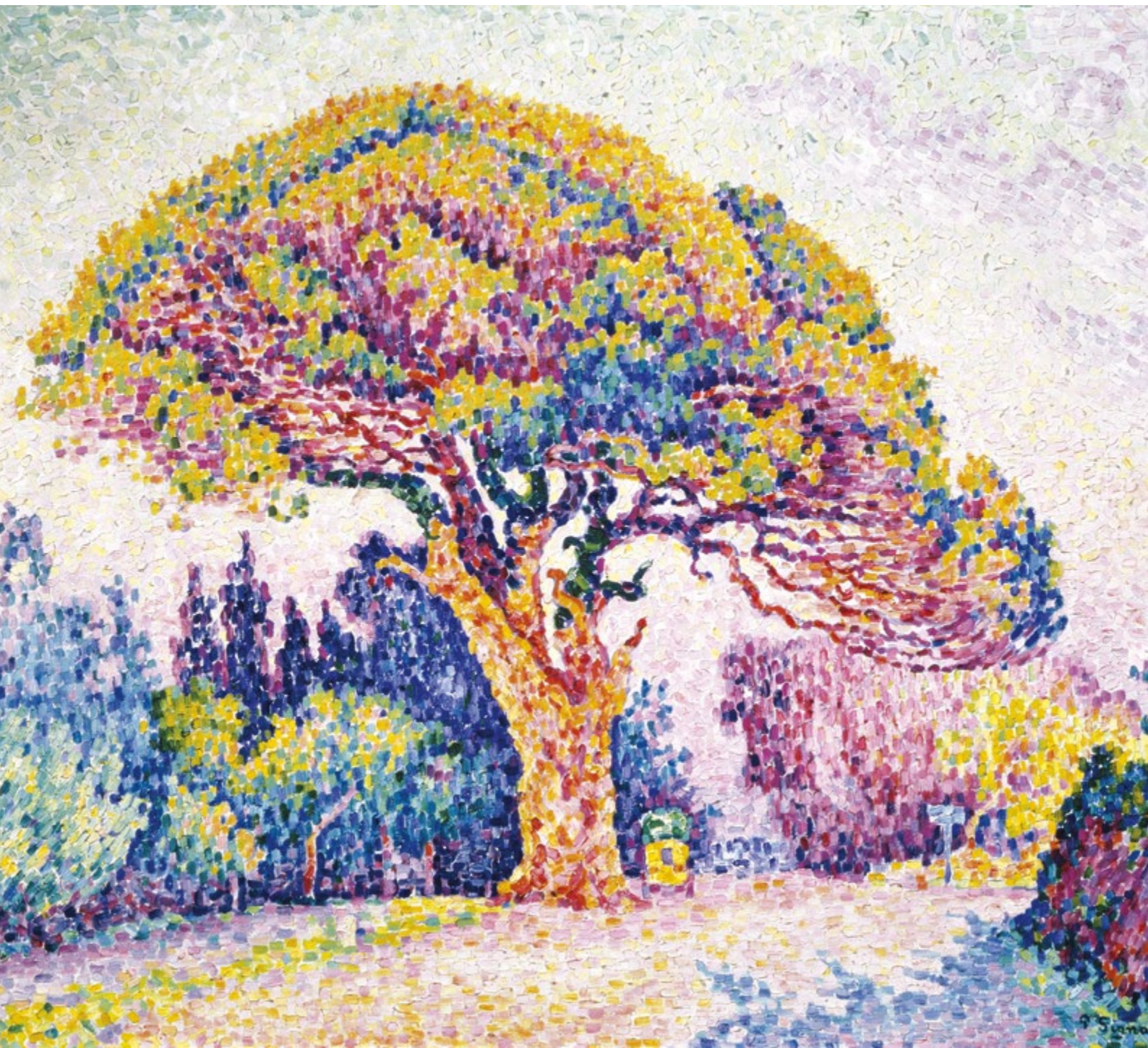
그런 다음, 무슨 일을
겪든지 최선을 다해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거나, 슬픔에서 벗어나거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애쓸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일 때라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객체보다는 행동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14 참조)”(“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16쪽)

우리가 맡은 일을 다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다음 말씀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이사야 41:13) 그 말씀은 베네수엘라의 성도들에게도,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우리가 맡은 일을 다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응답을 받으려면 종종 희생, 노력,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말한다. 컨퍼런스 센터에서 그의 아내와 청년 성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사진.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따금 공허하거나, 버겁거나,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거나, 혹은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분은 내가 이런 슬픔, 아픔, 혹은 비극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지식도 그저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즉각적인 응답의 시대에, 우리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중요하며 시급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면 때때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향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딩 아이콘처럼 좌절감을 주는 기다림뿐인 듯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클릭을 하고 화면이 열리길 기다리는 시간이 몇 초만 지나도 우리는 인터넷 연결이 다운되었거나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한 나머지 검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한 문제, 영원한 의미를 띠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응답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여론에서 나오는 대답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새로운 이론이나 추세가 나타나면

그 대답은 곧 그 가치를 잃고 맙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응답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으려면 종종 희생, 노력,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응답들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저의 확실한 간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필멸의 삶이라는 이 흥미진진하고 멋진 모험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점들을 연결하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신자 중 한 사람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보였습니다. “앞만 보면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야만 점들을 연결할 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액자 속에 넣어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다양한 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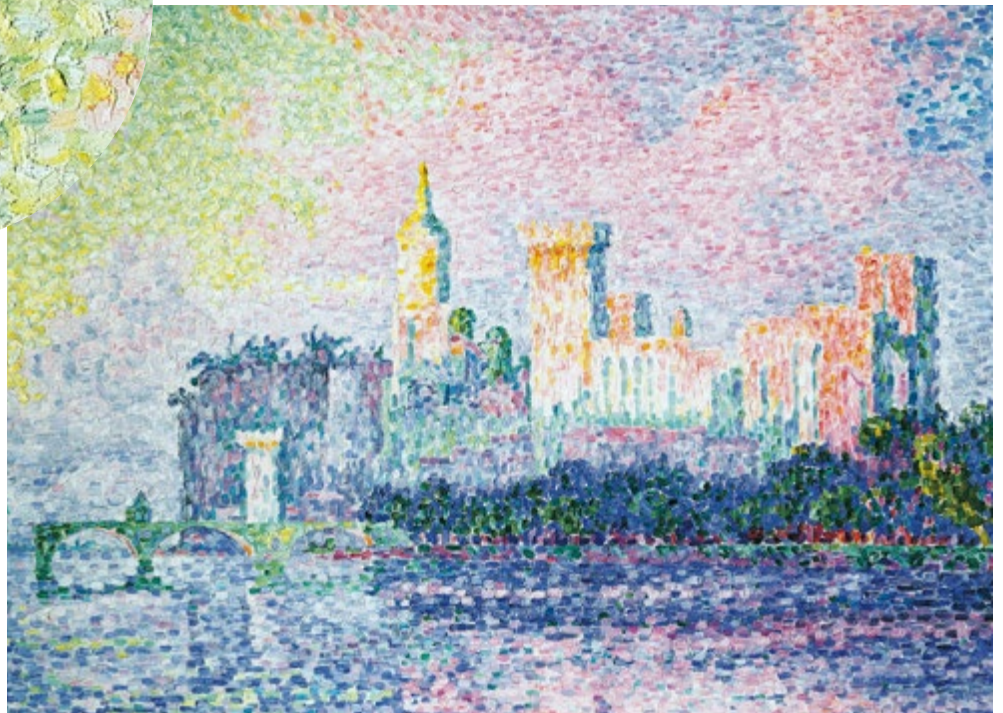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¹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9세기 후반에, 조르주 쇠라와 폴 시냐크 같은 화가는 후에 신인상주의라고 알려진 새로운 화풍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화법은 캔버스에 작은 색 반점 또는 색 알갱이들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점들은 연결되지 않고 무작위로 찍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림 전체를 바라보면, 점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색상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색상들이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며 마침내 어떻게 형태를 갖추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이며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이 신인상주의 미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나날을 이루는 순간순간과 사건들로 구성된 색점들이 때때로 서로 연결되지 않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점들에는 어떠한 질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들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영원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액자 속에 넣어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다양한 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그림 전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본다면, 원대하고 아름다운 도안이 있음을 믿기에는 족할 정도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언젠가는 완성된 작품을 보게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장이신 주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무작위의 점들을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충분한 신앙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믿는가?”

찍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재능을 확대해 주셨고, 기회를 마련하셨으며, 우리가 이제껏 상상했거나 스스로 이루어 낸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앞길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모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두 번이나 집을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우리가 새로 정착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를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 속에서 제 말씨는 제가 국외자임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살만한 충분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주한 지역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저는 학업에서 뒤쳐졌고 한 학년 전체를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독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서독에서는 영어를 배우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제 입이 영어를 구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십 대 시절에, 저는 아름다운 큰 갈색 눈의 아주 멋진 소녀에게 반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제게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다지 성공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 전후 독일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저 그런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탱해 주는 몇 가지 좋은 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학교와 교회에는 제가 늘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시는 교사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젊은 미국인 선교사가 경진상의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형제님을] 위하시면 누가 [형제님을] 대적하리요.”²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무언가에 세계 얻어 맞은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실무를 배우는 수습 과정에 있었는데, 한 선생님께서 제게 더 높은 목표를 세워 야간 학교에 다니며 기계 공학을 배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저에게 비행과 항공 분야에 대한 커다란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제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으며, 웬일인지 신기하게도 제 입에 변화가 생기는 듯하더니 영어는 더 이상 불가능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의욕이 생기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러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19살이었을 때, 공군 조종사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로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텍사스 억양으로 말하는 한 남성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배운 영어가 그가 말하는 영어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종사 훈련 학교에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으며, 모두가 1등으로 졸업하려고 앞을 다투었습니다. 저는 동급생 대부분이 영어 원어민이었기에 제가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비행 교관들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더욱 불리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지역 회원들은 저를 자신들의 지부와 가정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으며, 우리는 함께 텍사스 빅스프링에서 집회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제 교관들은 그런 활동이 우등을 차지하는데 지장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저는 영어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조종사 훈련을 마치고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항공기 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아름다운 갈색 눈의 소녀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을 완벽하게 행하라

제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굼직한 일에 직면할 때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운” 일,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작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최대한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할 때, 큰 일들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작고 쉬운” 일들에는 경전을 공부하고,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행하십시오. 그런 “희생”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희생은 하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³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는 “작고 단순한” 희생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작을 이루는 일상생활의 점들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그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겠지만,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만 충분한 정도의 신앙을 지니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⁴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우흐트도르프 장로님. 장로님에게는 참 잘된 일이죠. 하지만 장로님은 사도이시잖아요. 저는 그저 평범한 교회 회원이에요.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제 삶은 인도받고 있지 못해요. 만약 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할인점의 싸구려 버전이거나 보잘것없는 계획이겠죠.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면서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식의 계획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우주의 하나님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준비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스티브 잡스의 다음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만 보면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야만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제 앞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현명한 친구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작은 신앙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래를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은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힘든 시기에도 그분은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보입니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⁵

저는 이 성구 끝에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느낌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충분한 신앙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믿는가?”

사실 여러분은 많은 일에서 혼자서도 매우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임을 믿으시라고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아시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⁶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길에서 걸으십시오. 이는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준수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보다 천 배나 많이 하시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⁷

이러한 일들이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특히 우리 종교에 대한 믿음을 좌절시키고 심지어 조롱하는 모순적인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는 전례가 없는 통신 발전에 따라 우리 시대에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필멸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가는 여러분의 미래와, 이 지상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여러분이 담당할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모두 다 유례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대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전받고 조롱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지상 생활에서 겪는 시험의 일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⁸

여러분은 또한, 일단 구주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크고 넓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마땅해 하고 때로는 소리 높여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⁹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수치심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응답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응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 내고 의로운 길을 걸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를 따랐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제자의 길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진정으로 노력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편에서 바벨론 제1와드의

회원 기록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자로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진리를 조롱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¹⁰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분의 음성만이 진실로 중요한 음성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면, 여러분이 필멸의 삶이라는 이 신나고 멋진 모험을 하는 동안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쭙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성약과 복음의 원리를 계속 따르기만 한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남녀가 완벽하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며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이 둘은 결혼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녀가 그 선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서로에게 온전히 전념하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굉장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의 정서적,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일들을 꾸준히 행한다면,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완벽한” 사람을 골랐다고 생각하며 모든 힘든 일은 끝났다고 여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에게 구애하기를 멈추고, 더 이상 일대일로 대화하지 않으며,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든다면, 이 부부가 걸어가는 길은 슬픔과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직업 선택에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됩니다. 저는 별로 명성이 없는 직업을 택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일을 재미있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걸 것입니다.

멋진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열의를 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덜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다루기를 바라실까요?

그분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와 조셉에게 주신 가르침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¹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두뇌와 가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좋은 선택지는 하나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조셉과 그의 동반자들에게 일어났으며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구했을 때, 그분께서는 흥미로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느니라.”¹²

하지만 주님은 곧이어, “다만 충실하라.”¹³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보와 지식에 근거하여,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 가치 기준에 기초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결정한 일을 훌륭히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짐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위해 반드시 상세한 일정을 주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말은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개별 사항에 대해 일일이 지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스스로 알아낼 기회를 얻기도 전에 누군가가 인생에 대한 지름길을 알려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렇게 재미없는 모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필멸의 삶이라는 이 모험을 딱 한 번만 거칩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중대한 결정과 질문에 대한 스포일러와 해답이 갖추어진 개별적인 설명서가 있다면, 커다란 성취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요?¹⁴

하나님께서 선택의지를 주셨기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필멸의 삶은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계명과 성약이 있고, 영감 어린 선지자의 권고가 있으며, 또한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행복한 지상 생활을 영위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완벽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며, 그것도 이 모험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험이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는 않지만,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행복한 결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요셉이 보인 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모로 그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자신을 압박하는 온갖 지독한 상황에서도 그는 신앙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 위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자신이 간과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¹⁵

4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모험이 그만큼 극적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범을 명심하십시오. 충실함을 잃지 말고, 믿으며, 정직하십시오.



원한을 품거나,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점들은 확실히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그렇게 될 때까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첫째, 여러분이 던지는 가장 심오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기에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신앙을 가져 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정기적으로, 열성을 다해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셋째, 최선을 다해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위축되지 말고 그저 작은 일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행하면, 큰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넷째, 비판적인 목소리에 설득되어 신앙의 여정을 단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응답해야 할 대상은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치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임하는 속삭임을 따르는 가운데 최선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신앙을 지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한 노력을 성별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¹⁶

그렇게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구주를 따르고자 할 때, 여러분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¹⁷ 충실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원숙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은 정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평안을 안겨 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오면, 여러분은 필멸의 삶이라는 이 소중한 흥미진진한 모험을 돌아보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점들은 실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멋지고 웅대한 작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은혜와 연민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계시면서 당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주

1. Steve Jobs, Stanford University commencement address, June 12, 2005.
2. 로마서 8:31, 새 국제판 성경(1984).
3.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4. 교리와 성약 64:33.
5. 잠언 3:5~6.
6. 고린도전서 2:9, 새 국제판 성경.
7. 신명기 1:11, 새 국제판 성경.
8. 요한복음 15:19.
9. 니파이전서 8:26~28 참조.
10. 로마서 14:10~12; 빌립보서 2:10 참조.
11. 교리와 성약 9:8.
12. 교리와 성약 60:5.; 62:5; 80:3.
13. 교리와 성약 62:5.
14.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15. 창세기 37장, 39~46장 참조.
16. 니파이후서 32:9 참조.
17. 니파이후서 32:9 참조.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새로운 학습법을 배워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지침이 될 다음의 다섯 가지 원리를 고려해 본다.

와 서 나를 따르라 초대회, 주일학교 및 가정용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다. 처음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이 새로운 자료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 새로운 자료들을 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원리들을 읽으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원리가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원리 1:

**새로운 교과 과정은
가정에서의 학습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

일주일에는 168시간이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중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공과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일주일 내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적인 학습을 운동에 비유해 보면, 일주일에 딱 하루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여러 번 운동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얼마나 경전 공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통찰과 영적인 이해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을 나눌 때, 그 통찰과 영적인 이해는 여러분과 타인의 삶에 축복이 될 것이다.

교사:

일요일마다 훌륭한 공과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교사의 목표 중 하나는 개인과 가족에게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원들은 이번 주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들은 어떤 통찰을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의 역할을 합창단 지휘자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지휘자는 노래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화음을 이끌어 낸다. 여러분도 공과를 가르치고, 토론을 이끌고,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반원들이 자신의 통찰과 영감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감 어린 공과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원리 2:

주님은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그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를 바라신다.

학습자:

여러분은 경전을 공부하면서 복음 진리, 즉 교리를 발견할 것이다. 이런 교리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어려움에 대처할 더 큰 이해력을 얻게 된다. 어떤 복음 진리는 경전 본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또 어떤 복음 진리는 함축적으로 실려 있다. 진리를 찾는 것을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는 것에 비유해 보자. 진리를 찾아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파야 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신이나 사람[이] 원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

교사는 단순히 진행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는 교리를 가르치고, 간증하고, 인도하고, 영감을 줄 의무가 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숙고하고, 기도함으로써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은 반원들이 영감 어린 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울 준비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사로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자. 이 모든 노력이 합쳐질 때, 여러분은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원리 3:

개인적인 계시는 교회에서 복음 학습과 가르침의 중심이 된다.

학습자: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최근에 교회 회원들에게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권유했다.²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계시를 받고 싶다는 뜻을 그분께 보여 드린다. 보통 개인적인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주신 계시를 공부할 때 온다. 신앙개조 9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공부할 때, “그분이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과 “그분이 앞으로도 계시하실”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기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배운 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용해야만 한다.³

교사:

여러분이 공과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전을 공부할 때 올 수도 있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용 또는 교회 공과용 자료를 살펴볼 때 올 수도 있다. 영감이 오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여러분이 공과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공과 중에 영감이 오면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에 응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원리 4:

새로운 학습 자료는 자료일 뿐, 원천은 아니다.

학습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적인 지식과 힘의 원천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는 개인과 가족의 경전 공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료이다. 여러분이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이 교재를 안내서나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교재를 사용하여 영감 어린 가정의 밤을 계획할 수 있고 가족 경전 공부를 할 수도 있다. 독신 성인들은 그룹으로 함께 모여 경전 공부를 하는 데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과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권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활용하라.

교사:

반원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강력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매번 공과에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주일학교 및 초등회용 자료에는 여러분이 반원들을 위해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활동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교재에 실린 내용만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 반원들이 신앙을 쌓고, 이해력을 넓히고, 간증을 키우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활동을 수정하고 새로 만든다. 반원 중에 자신의 경험을 별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괜찮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그들이 알도록 돕는다.

원리 5: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려는 우리의 노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학습자:

경전에서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노력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약전서에서, 여러분은 구주와 그 외 사람들이 강력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었던 예들을 찾게 될 것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누가복음 18:22) 주님의 권유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즉 여러분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실천에 옮기라는 권유이다. 그러므로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성역을 베풀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성역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그분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교사:

교사는 공과반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봉사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누가 수업에 참석했고 누가 결석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반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는 데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교실 밖에서도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다. 교사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새로 나온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 뒤에 있는 지도 원리에 계속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주
1.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5장.
2.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9쪽.

교과 과정과 관련 자료는 comefollowme.lds.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자가 아니에요

청녀 활동을 하기 전날 밤이었다. 당시 청년 회장이었던 나는 활동실에 의자를 펴 놓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임신 7개월이었던 나는 거의 혼자서 의자를 펴다시피 했다. 하지만 곧 청년 서기와 보좌 한 명이 도착해서 그 일을 거들어 주었다. 의자를 모두 편 후, 우리는 장식물을 달기 시작했다.

그때 한 여성이 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상호부조회에서는 오늘 밤 이 활동실에서 요가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혹시 다른 방을 사용하면 안 되겠는지 물어보았지만, 다른 방들도 모두 사용 중이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의자를 다시 접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의자를 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인생이란 때로 이런 식이다. 갓 태어난

아기와 어린 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온종일 칠판퀴를 돌리고 난 다음 날에도 눈을 뜨면 똑같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늘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야 하고, 치워야 할 옷과 장난감과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다. 그야말로 의자를 펴고 접는 일의 반복인 셈이다. 그게 내 삶이다.

하지만 내 인생이 고작 의자를 펴고 접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청년 활동을 마치고 의자를 접어 넣으면서, 난 내가 몹시 사랑하게 된, 재미있고 훌륭한 소녀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소파에 묻은 땅콩버터 얼룩이나 늘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하는 나의 작은 가족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교리와 성약 64:33)

포옹, 지어낸 노래,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우편함까지 깡충깡충 뛰어갔다 돌아오기, 나를 위해 만든 까망게 탄 토스트 먹기 등등 이런 작은 일들이 나에게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의자를 펴고 다시 접는 것과 같이 시시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앉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할 때, 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의자를 펼 내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

저네사 오길, 미국 아이오와주

우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의자를 펴고 다시 접는 것과 같이 시시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인생이 고작 의자를 펴고 접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늦은 밤이었다. 근무 중인 점원은 나 혼자뿐이었고, 식료품 가게를 통틀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계산대를 닦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콧노래가 금세 노래로 바뀌었다. 나는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찬송가, 16장) 부르기 시작했다. 재미로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잘 없지만, 그날은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노래를 멈추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다가왔다.

그가 말했다. “내가 아는 노래인데, 어떻게 아나요?”

“그건 저희 교회의 찬송가인데요.” 내가 말했다.

“몰몬인가요?” 그의 물음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 아내도 후기 성도였는데 2011년에 암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불렀다고 말했다. 나는 조의를 표하며 우리 오빠도 2011년에 칠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우리도 오빠의 장례식 때 그 찬송가를 불렀다. 우리가 이 ‘우연의 일치’에 놀라워할 때 영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래서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와 똑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했었다. 오빠가 죽은 후, 나는 몇 달 동안 힘들어하며 의심과 씨름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족이

영원하다는 감미로운 지식을 얻었다. 여전히 의문이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확고하게 말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깊구면.” 그 사람이 말했다. “아내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지.” 나는 그 말에 동의하며, 니파이후서 31장 20절의 나머지 부분을 인용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이다.

“그거였어!”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나는 그게 몰몬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 책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온라인으로 몰몬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다. 그 사람은 나와 악수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믿고 그 신앙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나의 신앙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했다. ■

웬디 제닝스(가 리아 바턴에게 들려준 이야기), 미국 유타주



재미로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잘 없지만, 그날은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노래를 멈추었다.



교회에 가지 않은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내일은 나도 교회에 가리다

아 내 마들라인과 함께 침례와 확인을 받았지만 나는 2년이 지난 후, 저활동이 되었으며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늘 일요일 아침이면, 아내는 나에게 일어나서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 말했다.

“피곤하니까, 나 좀 자게 내버려 뒹요.”라고 주로 말했다. 그러고는 나중에 축구를 하러 가곤 했다.

마들라인은 혼자 일어나서 아들

루카스와 함께 집회소로 향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내는 항상 교회에 갔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탄은 나에게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고 납득시켰다. “넌 잘하고 있고,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라고 사탄은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은, 나는 축복과 진보와 행복을 잃었던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나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둔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금요일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름다운 시골에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우 행복했다.

그런데 그때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갑자기,

운전을 하던 중에 배운 교훈

나는 내가 더는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내와 아들과 다시 함께하기를 바랐으며, 어둠도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비참한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했다. 나는 마들라인과 루카스를 잃었다. 그들은 어둠에 싸인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나도 없이 앞서가 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표적을 주셨음을 깨달았다.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아내와 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가 인봉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잃게 될 것이었다. 다음 생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며, 홀로 길을 잃고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었다.

“내일은 나도 교회에 가리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 후로 나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다. 5년 전에 그 꿈을 꾸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2016년 9월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한다. 특히 가족에게, 그리고 아내의 용기와 힘과 모범에 대해 감사한다.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과 아내 덕분이다. ■

하르민 틀레도 곤살레스, 칠레 칠로에

나는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경적이 시끄럽게 반복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아름다운 일요일 오후, 청년 성인 모임을 마치고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 그 모임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생각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다.

어느덧 길은 양방향으로 쪽 뺀 좁은 도로로 이어졌다. 반대편 차선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지만, 내 뒤로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경적이 시끄럽게 반복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뒤로 어떤 운전자가 따라붙었던 것이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켜다 켜다 하며 나에게 비키라고 고함을 쳤다. 나를 앞질러 가려는 것 같았다.

이런 사람은 인내심을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속도를 늦추었다. 수많은 거리를 지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불빛을 깜빡였다. 그러다가 그는 도로에서 벗어나 차를 멈췄다. 나는 그가 나를 앞지르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백미러를 보았다. 그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나와

조수석 문을 열었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았다. 멀리서 “병원 응급실”이라는 간판이 조명을 받아 빛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혼잣말을 했다. 나는 집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날 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님을 배웠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판단하게 될 때면, 그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 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닌 잠재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사랑과 이해심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삶에서 구주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홀리오 메사 미첼, 멕시코 치와와





하나님의 딸들을 그분의 신권 권능에 연결함

바버라 모건 가드너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사 및 교리 부교수

나는 신권
및 신권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여타 미덕보다도 평등, 힘, 공정성, 용인을 더 치켜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정체성, 권위, 영성,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많은 사람에게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주제이다.

자신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여성은 자신을 위해 베풀어지는 영적인 잔치를 맘껏 즐기지 못하고 있다. 많은 남성 역시도 그 주제에 관해 혼란스러워한다.

여성이 신권 권능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성들 자신이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땅히 [그들의] 것인, 또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¹ 먼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권과 관련된 진리,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최근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왜 일부 여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자

**여성은 하나님께서
신권 권능을
통해 성취하시는
사업의 필수적인
참여자이다.**

노력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권 권능을 통해 성취하시는 사업에 어떻게 하면 여성이 온전히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 여성과 신권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진리는 무엇인가?

사도들과 본부 보조 조직 여성 지도자들은 최근 들어 여성과 신권의 관계를 더욱 강조한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이다.

신권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권능이다.(모세서 1:39)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해 왔다.

여성은 구원 사업에서 공식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본부 청년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을 신권 사업의 필수적인 참여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의 여성들은 회장, 보좌, 교사, 평의회 회원,

자매, 어머니이며, 우리가 일어나서 신앙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²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의 자매들에게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세 가지 위대한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둘째는 교회 회원의 신앙을 강화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셋째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시키는 일입니다.

교회의 여성은 형제들과 힘을 합쳐 주님의 전능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여성은 커다란 책임을 수행하며 그러한 [임무를] 성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맡은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그러한 조직은 강하고 활기[차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들은 신권 [소유자들과] 협조하는 위치에 서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지니신 여성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지도력과 힘과 뛰어난 결과를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데에서] 하나님을 도와 드리는 훌륭한 동반자로서 일하시는 것을 지지합니다.”³

여성과 남성은 모두 신권 열쇠를 소유한 자들에 의해 권능과 권세를 위임받는다.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주신 권세이다.”⁴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의식은 그에 대한 열쇠를 지닌 자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승인하에 이루어집니다.”⁵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신권 열쇠를 소유한 자의 지시에 따라 부름을 수행할 권세를 갖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지시 아래 충실하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신권 권세를 행사하고 신권 권능을 활용하는 일을 맡 그대로 가능하게 합니다.”⁶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⁷

나는 이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만일 스테이크에서 청남 청년 회장단 합동 모임을 한다면, 감리자는 누구인가요?” 스테이크 청년 회장 및 청남 회장은 모두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자(스테이크 회장)에 의해 부름과 성별을 받았으므로, 똑같은 신권 권세를 가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상대방을 감리하지 않는다. 서로 번갈아 모임을 사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권을 통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회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을 당신의 신권을 통해 주십니다.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자매 선교사는 성별을 받고 신권 권능을 부여받아 신권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의 좋은 본보기이다.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충만한 복음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⁸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신권 축복[은]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 교회에 있는 모든 충실한 여성에게도 주어집니다. ... 주님은 그분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십니다.”⁹

여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수행할 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로마서 8:17; 또한 16절 참조)

(미혼 및 기혼) 여성과 남성은 모두 성전에서 신권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1833년에 주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95:8)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했다. “엔다우먼트는 글자 그대로 권능의 은사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신권의 의식을 집행합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¹⁰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는 모든 합당한 회원들은 신권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성들은 신권 소유자의 방문에 관계 없이 자신의 가정에서 신권 권능을 지닐 수 있다.

전 본부 상호부조회 보좌였던 세리 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신권 권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이도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여는 법을 배우고,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강화되며, 보호받고, 깨우침을 얻고, 지금보다 더 명석해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¹¹ 이 권능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은



“경건의 능력”이 신권 의식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 주셨으며, 이 경건의 능력에는 그분처럼 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84:20 참조)

때로 신권 권세는 교회와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교회 조직은 계층적이며, 가족은 가부장적이다. 옥스 회장은 “신권의 권세가 가정과 교회에서 작용하는 방법에는 … 몇몇 차이점들이 있”다고 가르쳤다.¹² 신성한 계획에 의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게 되지만,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한다.¹³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1922~2015)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형제 여러분, 가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내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에는 사장이나 부사장이 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 영원히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을 이끌고, 인도하고, 지도할 때 언행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동등한 배우자입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의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며 일치 단결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¹⁴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감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신권이 없으셨지만, 홀로 된 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의 주재자가

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는 감독님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신권 권세를 전적으로 존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감리하셨을 뿐, 교회는 그분들이 감리하셨습니다.”¹⁵



2. 걸림돌

여성이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권에 관하여 남성과 여성이 겪는 혼란.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멜기세덱 신권은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 이롭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신성한 권능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신권’ 그 자체는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권과 여성’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권 소유자와 여성’이라고 불려야 합니다.”¹⁶

“이제 신권 측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또는 “청녀 캠프에 갈 신권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혼란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며,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신권은 여성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

신권에 관해 공부하라고 권유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와는 관련이 없거든요.”라고 대답하는 자매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권을 통해 축복을 받으므로, 우리 모두는 신권을 잘 이해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신권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신권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 똑같이 정통하다면, 이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 생각해 보라.



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권 권능을 통해 성취하시는 사업에 우리 자매들이 온전히 참여하도록 우리 각자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 및 여성 지도자들의 최근 말씀을 배운다.

지난 몇 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들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왔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는가?

예컨대, 2015년에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스러운 의식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¹⁸

모든 회원들이 신권 사업에서 여성이 하는 독특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벨라드 회장은 상호부조회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여러분의 영향력의 범위는 고유하고 특별하며, 남성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내면의

힘과 확신을 지닌 하나님의 딸들은 다른 누구보다 강한 설득력과 힘으로 우리 구주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개종한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힘은 측량할 수 없으며,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¹⁹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여성]들은 신권의 인도를 받는 구원 사업에서 자신이 방관자나 옹호자가 아니라 필수적인 참여자임을 알아야 합니다.”²⁰

여성 지도자들을 신뢰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지지하는 분들의 말씀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업을 이끄신다. 그들의 가르침에 더하여,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은 교회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말씀하도록 성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권 권세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신권이라는 주제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일어서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¹⁷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한계를 여성에게 두는 것.

교회에서 몇몇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신권 직분에 성임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단순히 문화나 역사, 잘못된 인식, 또는 전통에 근거하여 여성에게 한계를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들도 유능한 지도자와 교사가 되고, 교회 평의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며, 모든 연령의 회원들에게 훌륭한 제자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평의회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되,
단순히 직책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자매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신권 지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열쇠를 충분히 존중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방식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신권 지도자의 힘과 영향력이 축소될 것입니다.”²¹

**주님께서 직접 답하지 않으신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전하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는다.**

옥스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답하지 않으신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도록 경고했다. “계시가 주어진 것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대려고 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시란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²²

벨라드 회장은 이에 딱 들어맞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신권 직분에 성임될까요? ...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왜 이렇게 조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²³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리 및 관행에 관한 케케묵은 해석과 설명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현명한 처사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과, 오래되거나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mormonnewsroom.org와 LDS.org를 통해 교회의 최신 현안, 정책, 발표를 숙지하고, 저명하고 사려 깊으며 충실한 후기 성도 학자들의 저술을 참조하십시오.”²⁴ 때로는

“잘 모르겠군요”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의 답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신성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신앙의 빛을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신권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신권에 관해 공부하고 배울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전 구절이 도움이 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엘마서 13장, 교리와 성약 2편, 13편, 20편, 76편, 84편, 95편, 107편, 110편, 121편, 124편. 이 주제에 관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영감 어린 질문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전에 참석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기(1915~1985)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의 교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교회에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전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신권의 교리는 오직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신의 권능에 의해서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8:12 참조)”²⁵

4. 결론

여성들이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옹호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세상은 점점 더 대립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의견이 분분하고 격한 감정도 흐른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에스더처럼 자신들이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에스더 4:14),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하나의 단체로서 세상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미치게 될 선한 영향을 상상해 보라.

에머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것입니다. … 특별한 일들과 긴급한 요청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²⁶ 지난 몇 년간,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에 없이 자매들에게 이러한 긴급한 요청과 간청을 보내 왔다. 우리가 신권과 관련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왜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특권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여성에 관해 그리고 신권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기회에 관해 우리가 얻은 지식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졌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도왔[다는] 그 사실을 통해 기쁨과 화평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²⁷ ■

주

1.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7쪽.
2. 보니 엘 오스카슨, “힘차게 일어서라, 시온의 자매들이여”,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4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헝클리*(2016), 95쪽.
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1.
5. 맬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쪽.
6. 엠 러셀 벨라드, “주님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리아호나*, 2014년 4월호, 48쪽; 또한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 역사와 업적*(2011), 138쪽 참조.
7. 맬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51쪽.

8. 엠 러셀 벨라드, “주님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리아호나*, 49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팔딩 스미스*(2013), 163쪽. 신권의 축복에 관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한다. 브루스 알 맥콩키, “신권의 열 가지 축복”,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48~52쪽을 참조한다.
10. M. Russell Ballard, “Let Us Think Straight”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ug. 20, 2013), 7, speeches.byu.edu.
11. Sheri Dew, *Women and the Priesthood: What One Mormon Woman Believes* (2013), 125.
12. 맬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6쪽 참조.
1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14. 엘 톰 페리, “아버지, 영원한 부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쪽.
15. 맬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26쪽.
16. 맬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권능”,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5쪽.
17. Linda K. Burton, “Priesthood: A Sacred Trust to Be Used for the Benefit of Men, Women, and Children”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May 3, 2013), womensconference.byu.edu/transcripts.
18.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96쪽.
19.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37쪽.
20. 보니 엘 오스카슨, “힘차게 일어서라, 시온의 자매들이여”, 14쪽.
21.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35쪽.
22. Dallin H. Oaks, *Life’s Lessons Learned: Personal Reflections* (2011), 68–69.
23.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35쪽.
24. 엠 러셀 벨라드, “21세기에 교회 교육 기구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2016년 2월 26일), broadcasts.lds.org.
25. 브루스 알 맥콩키, “신권의 교리”,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50쪽.
26. 에머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4쪽.
27. 엠 러셀 벨라드, “21세기에 교회 교육 기구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

한 번은 우리 와드에 있는 자매와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은 우리 와드의 성전 방문일이었는데, 아침에 그곳에 나타난 회원은 우리 두 사람 뿐이었죠. 우린 어떤 의식이든 참여자가 제일 필요한 곳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는데 ... 그게 인봉 의식이었습니다.

아직 첫 데이트를 한 지 12시간도 안 된 자매와 대리 인봉을 하게 되어 엄청 긴장이 됐지만, 놀랍게도 생각만큼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죠. 그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인봉을 포함하여 **각각의 성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기사에서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만일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전 의식들은 그저 영적 확인 목록에서 완수했음을 표시하는 항목이 아니라 훨씬 더 필요한 근원, 즉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63:23 참조) 게다가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성인들이 성전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케이알로힐라나는

성전 가먼트를 충실히 입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전합니다.(44 쪽 참조)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 자라리아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독신 성인을 위해,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질의응답을 정리해 두었습니다.(온라인 전용) 그리고 마헤시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성전에 다시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48쪽 참조)

저는 제 **영적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가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안팎에서 **성전의 영을 받아들여 저를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제가 맺은 성약을 통해 날마다 저의 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앨릭스 휴기

Alex Huzie



가장 훌륭한 조언 ...

청년 성인들은 성전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에 관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훌륭한 조언을 나눈다.

“우리 감독님은 제가 원하는 만큼 성전에서 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성전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제 자신에게 달린 문제죠.”

—채스민 나이, 미국 유타주

“성전이 가까이 있다면 좋겠지만, 회원들이 성전에 아예 가지 않는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겠죠. 성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간에 우리는 성전 의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콜 머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목적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가지고 가거나, 조상을 위해 의식을 받거나, 평화를 구하거나, 영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드니 오토, 미국 유타주

실수한 후 다시 도전하는 것에 관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19년 3월 31일까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케이알로힐라니

월리스는 자신의 삶과 믿음에서 영감을 받아 건전하면서도 인기 있는 청년 성인 소설을 쓰고 있다. 그녀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의 졸업생이며 청년 독신 성인 와드의 활동 회원이다.



마헤시 쿠마르

베두루파카는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출신이다. 그는 남편이자 귀여운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그는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선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야외 활동하기, 새로운 테크놀로지 익히기,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자라이아 이니스는

바베이도스 출신이다. 그녀는 21세이며, 다섯 명의 자녀 중 맏이다. 그녀는 평생 동안 교회 회원이었으며, 글쓰기와 음악 연주하기를 좋아한다.



엘릭스 휴기는

미국 오리건주 출신이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는 청년 성인 문학 공부하기, 재미있는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 쓰기, 우유 마시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



소개

44 **성약으로 방패를 삼고**
케이알로힐라니 월리스

48 **다시 거룩한 성전을 바라봄**
마헤시 쿠마르 베두루파카



온라인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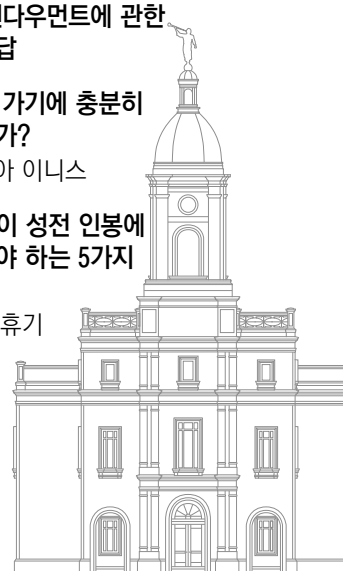
성전 엔다우먼트에 관한 **질의응답**

성전에 가기에 충분히 **합당한가?**

자라이아 이니스

독신들이 성전 인봉에 **참여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엘릭스 휴기



아래의 기사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lds.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충실하게 성전
가먼트를 입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권능과 보호는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성약으로 방패를 삼고

케이알로힐라니 윌리스

내 가 성전 가먼트 입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가먼트의 소재가 가벼워서 일단 그
옷에 익숙해지면 입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 하지만 가먼트를 매일
입는 것은 가먼트가 상징하는 것,
그것을 입음으로써 오는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외적인
표현으로 인해 아름답고 영적인 경험이
된다. 가먼트는 평안과 힘, 평온, 권능,
거룩함을 가져다준다. 가먼트는 내가
그것을 소중히 하는 만큼 내 인생에
축복이 된다.

때로 사람들은 가먼트를 단순한
속옷으로 여기기도 하고,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점잖은 것과
점잖지 못한 것에 관한 임의적인 선)을
나타내기 위한 단정함의 척도로만
여기기도 한다. 가먼트를 올바르게 입는
것은 (특히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분명
단정함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성신권의
가먼트가 상징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강력하고도 영원한 관점

나는 열아홉 살에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불행한 상황이 겹쳐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지만, 나는 성약에 충실했으며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켰다. 나는 성약에
매달렸으며, 성약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시련을 겪는 중에도 홀로 남겨지지
않았고 성약으로 인해 더 강해졌다.

나는 성전 추천서를 계속 소유하고,
가르침받은 대로 가먼트를 올바르게
입었으며,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킨
덕에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 성약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축복을 모두
열거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가장 확실한 축복은 하늘의
관점을 유지하는 능력과, 주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선택이 나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내 인생에서는 엉망진창인 일들이
많았다.(그중에서도 최악은 이혼,
고통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답답한
직장 생활, 개인적인 문제 등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먼트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나는
당시 내가 겪고 있던 시련보다(각각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이 이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두 가지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영을 가까이 느꼈으며, 내면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신체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여정에서 어두운 지점을 통과하는 동안 정서적 혹은 신체적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에도 나는 강한 소망과 영원한 관점으로 인도를 받았다.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생길 때마다 이 평안은 나를 계속 지탱해 준다.

내가 경험한 성전의 축복은 때때로 우리가 간과하는 (내적인 평안과 속삭임 같은) 일상의 축복에서부터 (우리 가족이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 것과 같은) 극적이고 영속적이며 분명한 축복까지 다양하다. 개개인이 하는 경험은 독특하고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축복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온다.(교리와 성약 82:10

참조) 그리고 가먼트를

입는 것은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있음을 주님께 보여 드리는



중요하고도 개인적인 방법이다.

끊임없는 영적 보호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은 우리가 가먼트를 올바르게 착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축복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먼트는 성스러운 성약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겸손을 키우고 그것을 입는 사람에게 방패와 보호가 됩니다.”¹

이 방패는 니파이가 말한 “대적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니파이전서 15:24) 날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화살이 몇 개나 되는지 계산해 본다면,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사방으로 부적절한 이미지와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거나 순결의

법을 어기라는 압력 또한 받고 있다. 직접 대면해서 또는 특히 온라인에서 언쟁을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라는 압박과 유혹은 훨씬 더 만연해 있다. 자신들의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알본다든지, 문법상의 실수 같은 사소한 것으로 사람을 놀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감각은 둔해지고 성신의 경고를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불화살”을 열거하자면 그야말로 끝이 없으며, 그러한 목록은 언제나 위험하다. 칠십인 정원회의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는 “삶의 많은 혼란과 유혹은 마치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가? 이 말씀의 뒷부분에서 와콜로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여러분이 의식에 참여하고 관련된 성약을 지킨다면 놀라운 빛으로 인도되고 점차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²

만일 사탄이 날마다 우리에게 쓰는 “화살”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정말 날카로운 물체라면, 여러분은 방패를 집에 가만히 두고 나오겠는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나 피난처로 가는 길을 알려 주는 지식을 무시하겠는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도, 성약을 맺고 지키기를 미루겠는가?

우리의 진보에서 성약이 발휘하는 힘

가먼트가 주는 보호는 일부의 잘못된 생각처럼, 가먼트 자체가 지닌 어떤

마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가먼트에 약속된 보호는 우리가 성약을 지키고 매일 충실하게 주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 보일 때, 주님께서 신체적 및 영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보호이다.

성전 성약과 가먼트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매주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는 것처럼, 매일 가먼트를 입는 것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성약을 지키고 가먼트를 입는 것은 신성한 보호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뜻을 매일 그분께 보여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보호를 받고 안전하기를 바라신다.

매일 축복받음

우리가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매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일상 생활에서 지킨다면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나는 내가 성전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정하고, 그런 후에 내가 맺은 성약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이 정말 기쁘다. 나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맺은 성약대로 가먼트를 올바르게 착용함으로써 매일 축복을 받고 있다. 가먼트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내가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뜻을 그분께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하와이주에 산다.

주

1. Boyd K. Packer, *The Holy Temple* (1980), 75.
2. 타니엘라 비 와콜로, “우리를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구원 의식”,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40, 41쪽.

더 알아보기

- temples.lds.org에서 성전, 성전 준비 및 성전 의식에 관해 더 알아본다.
- mormonnewsroom.org/article/temple-garments에서 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 가먼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거룩한 성전을 바라봄

내가 맺은 성약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헤시 쿠마르 베두루파카

4년 전, 종교 교육원 교사인 수레시 나트라잔 형제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 중에 성전에 가 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전해에 처음으로 나는 아내 아난타와 함께 열 시간이나 걸리는 중국 홍콩 성전까지 다녀왔으므로 자랑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러자 그분은 “형제님이 성전에서 어떤 성약을 맺었는지 기억합니까?”라고 물었다.

그 질문을 받고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처음으로 성전에 갔을 때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성전에 가서 내가 맺은 성약과 나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삶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종교 교육원에

등록했고, 어느 날 우리는 선지자 요나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요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 요나 2장 4절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경전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내와 함께 다시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4년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번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성전이였다.

그곳에 있는 동안, 암으로 돌아가신 삼촌의 대리 의식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삼촌을 위해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 성전 의식을 통해 삼촌이 받게 될 축복에 관해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처음 성전에 갔을 때 나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성전 회장님이 해 주셨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님,



지금 당장은 형제님이 하는 의식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여기서 위대한 일을 했음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두 번째로 성전을 방문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데 4년이 걸렸다.

이제 나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맺은 성약이 얼마나 성스러운지를 기억한다.

올해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성전에서 우리의 결혼을 기념하고 조상들을 위해 인봉 의식을 해 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정규 직장 말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업을 하고 있다.

나는 성전 사업이 실재함을 알고 있고, 또한 느끼고 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성전에 참석해서 우리 자신과 휘장 저편에 계신 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다. ■

글쓴이는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에 산다.



타이완 타이베이 성전 앞에 있는 마헤시와 아난타 베두루파카.

성전 엔다우먼트 질의응답

처음으로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기사의 온라인용 질의응답을 복음 자료실이나 liahona.lds.org에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찾게 될 다섯 가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전 엔다우먼트와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성전의 가르침과 성약에 집중한다.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 및 기타 교회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엔다우먼트의 원리와 성약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아본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러한 진리들을 살펴보면 성전 의식과 성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순결의 법을 공부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은 요셉이 보인 고결함은 여러분이 이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창세기 39장 참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니파이의 결심은 여러분이 부름을 대하는 자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니파이전서 3:7 참조)

개인적인 상황이 허용되는 한 자주 성전에 간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지시를 받지만 의식과 성약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가르침 받는 영원한 진리를 깊이 명상하면서 자주 성전에 갈 때 커질 것입니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3쪽.

lds.org/go/031949에서 하나님과 맺는 성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COLORADO

54

STATE LEAGUE
SPORTS

이번 호 이야기



저는 가족 역사를 좋아해요!

제가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칠레 산티아고 성전에서 조상 한 분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죠.

당시 저는 집사였고, 처음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침례반에 막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가 그 침례실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낡은 옷을 입고 계신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대리 의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분을 위해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온 후에, 사방을 둘러보며 그분을 찾았지만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전 사업을 위한 이름들은 성전에서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었기에 가족 역사 조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의 이름을 찾는 게 무척 신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교회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의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죠. 이름들을 더 많이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께 효율적으로 이름을 찾고 조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쭙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1명의 가족 이름을 찾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분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침례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자신의 성전 사업이 행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이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루카스,
16세, 칠레 산티아고

- 52 참된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칼 비 쿡 장로
- 55 '그것은 참되도다, 그것은 참되도다'
다비드 무안다
- 56 연차 대회 습관 들이기
- 58 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다
익명
- 60 일상에서 기적 찾기
브리아나 콜 허버트, 앨릭스 휴기, 애스펜 스탠더
- 63 포스터: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연차 대회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닐 엘 앤더슨 장로



칼 비 쿡
장로
칠십인 회장단

참된 것은 무엇이고

저는 최근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17세의 훌륭한 청년 케일리를 만났습니다. 그 대회에서 케일리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케일리는 하나님은 실재하시고, 이 교회가 참되며,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은 거짓이라고 확고하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케일리의 신념에, 그리고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임 후에 케일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별력과 신념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사실, 케일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큰 역경을 이겨 냈습니다.

케일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

케일리는 늘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교회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중대한 질문이 몇 가지 떠올랐습니다. 케일리는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리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경전이나 연차 대회 말씀을 찾아보고 부모님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다른 온라인의 기사들을 찾아본 것이었어요.”

처음에, 케일리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들을 계속해서 조사하다 보니, 제가 읽은 것들로 인해 더 많은 질문과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케일리는 신앙과 소망을 모두 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간증의 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케일리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저는 경전 읽기, 기도하기,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등 제가 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들을 점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케일리는 암흑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케일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무엇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누군가가 왜곡해서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발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속임수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죠.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케일리는 자신의 상황을 조셉 스미스가 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다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야고보서 1:5],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이 진실로
참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해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3)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 중요한 시점에, 케일리는 세미나리 교사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케일리의 세미나리 교사는 케일리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녀만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세미나리 교사는 자신의 간증을 나눠주었고, 케일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케일리의 할머니는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정보와 교회 교리 중 어느 것이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케일리는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내 마음을 고양시켰던가? 어느 것이 나의 영혼에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주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끝없는 행복한 상태에서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가르쳐 준 것은 어느 것이지? 내 머릿속에 불평을 심어 준 것은 어느 것이었지?’

기도와 경전을 통해 하나님을 찾음

케일리의 어머니는 케일리에게 기도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케일리는 방으로 가서 온 영혼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케일리는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제 마음이 화평과 감사로 충만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갔어요. 우리는 같이 기도했고, 엄마는 제게 몰몬경을 10분간 읽어 보라고 권하셨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몰몬경을 읽는다면 축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어느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지를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케일리는 매일 기도하고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케일리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트위터나 웹사이트들은 멀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려는 의도로 세미나리에 다녔습니다.

참된 것을 분별함

약 2주간의 꾸준한 노력 후에, 케일리는 부정적인 소리가 잠잠해짐을 느꼈습니다. 학교 다니기도 편찮아졌습니다. 일도 더 즐거웠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나아졌습니다. 케일리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 행복감 때문에 케일리는 말합니다. “저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을 때 그분께서 제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케일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숙고하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야고보가 가르치고 조셉 스미스가 행동으로 옮겼듯이 구하고 행동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케일리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문을 품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 답을 찾을 때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 물문경을 공부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 읽고 듣는 것을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괴하려는 기술과 대중 매체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질문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정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응답은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때 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신 케일리와 청남 청년 여러분에게서 영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케일리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풍조를 간파하고, 인기는 있지만 알팍하거나 위험한 것을 감지하는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¹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고, 성약을 지키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및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은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참된 것을 알고 생활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말씀을 인용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6쪽.



LA SAINTE BIBLE

나는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비드 무안다
나는 열두 살쯤 되었을 때 물몬경이 참된지 스스로 알고 싶었다. 말씀을 할 때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물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나 역시 알게 되리라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모로나이서 10:3-4 참조) 몇 주 동안 물몬경을 읽으면서 평온함을 느꼈지만, 빛이나 천사나 음성과 같은 극적인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물몬경 읽기를 그만두었다.

어느 날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식량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 주셨다는 내용을 읽었다. 각 사람은 매일 일정량의 만나를 거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식량을 보내 주셨으나, 사람들은 그 식량을 모으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니파이의 말씀이 떠올랐다.(니파이전서 3:7) 나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명하셨고, 그들이 굶주릴 것에 대비하여 식량을 내려 주시려는 계획을 하셨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물몬경 구절 덕분에 나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설명하셨듯이,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가 불을 켜는 순간 환해지는 빛보다는 점차 솟아오르는 태양과 더 비슷하다. 나는 물몬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영의 음성을 통해 내가 수없이 받은 느낌은 ‘그것은 참되다, 그것은 참되다’였다. 나는 여전히 거의 매일 물몬경을 읽고 있는데, 매번 이 말을 듣게 된다. ‘그것은 참되다.’ ■

주
글쓴이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 살고 있다.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7~90쪽 참조.

‘그것은 참되다,
그것은
참되다’

LE LIVRE DE MORMON

연차 대회 습관 들이기

연차 대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여러분은 반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에 아마도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미래에 독립하게 되면, 6개월마다 연차 대회가 열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는 이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그 권능을 활용하는 선택을 지금부터 한다. 그저 “언젠가 온라인으로 봐야지.”라고 말하지 말고 이 대회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한 행사와 습관으로 만든다.

다음은 연차 대회 습관을 들이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다.

1

목표를 세운다.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가능한 한 모든 모임을 시청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모임을 시청할 목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자 노력한다.



2

날짜를 정해 둔다.

연차 대회를 시청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동 경기나 친구들과의 활동 또는 다른 겹치는 일정들로부터 시간을 비워 둔다. 연차 대회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없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행사로 여기고 시청할 날짜를 정할 수 있다.

3

전통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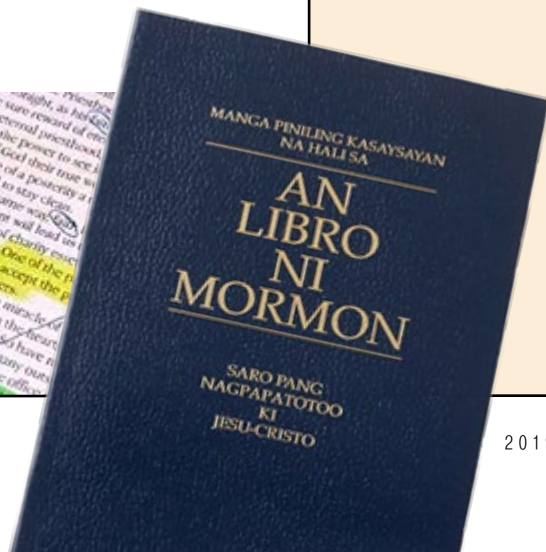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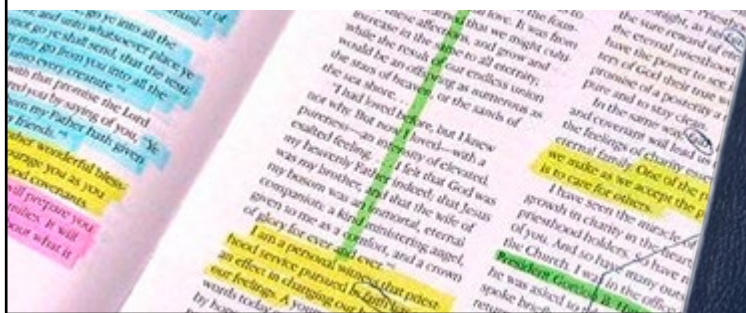
가족이 함께 서로 좋아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가족 기도를 하고 대회 모임을 시청하거나, 인용문을 모으는 등 의미 있는 전통을 세울 수 있다. 즐거운 전통이 되도록 음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음식이나 간식에 연차 대회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름을 붙인다.(연차 대회 과자, 영감 아이스크림, 또는 연차 대회 당근)



4


연차 대회 이후의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는 복음 학습에 연차 대회 말씀을 포함시킨다. 그다음 6개월 동안 일요일마다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2주간 매일 버스나 차 안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듣거나, 개인 경전 공부를 하는 동안 연차 대회에서 언급된 모든 경전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을 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



“다음 6개월 동안 이 대회 말씀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 복음 교육에,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에, 그리고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의 토론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2018년 4월 연차 대회.



나는 조상들에 관해
배움으로써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용기를
얻었다.

나의 가치를

익명

나는 11살쯤 되었을 때 외설물을 접하게 되었다. 그 일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여 십 대 시절의 가장 힘든 싸움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 나는 외설물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불결한 생각이 지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청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이 무렵, 할머니는 나에게 고조할머니의 자필 자서전을 빌려주셨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는 고조할머니 테아 마르티나 와겐(1883~1967)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테아 할머니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불과 몇 달 전에 비극적으로 사망했고, 노르웨이 출신의 이민자 어머니가 홀로 테아 할머니를 키웠다. 자라면서 형편이 어려웠지만, 테아 할머니는 야생 딸기를 따고 지역의 루터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테아 할머니의 어머니는 재혼했고, 의붓아버지의 도움으로 테아 할머니는 대학에 다녔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테아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은 이 교회로 개종했고 미국 유타주로 이사했다. 테아 할머니는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다. 심적 고통이 컸던 테아 할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간증에 충실했다.

테아 할머니에 관해, 그리고 그녀가 역경을 헤쳐 나가며 했던 선택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강렬한 사랑을 느끼며 가슴이

원본: 엘리자 나버움
삽화: 엘리자 나버움



다시금 확인하다

벽차올랐다. 나는 나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고 나를 마비시키는 듯한 죄책감을 이겨 낼 힘을 얻었다. 그녀가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LDS.org에 가서 테아 할머니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을 요청했다. 축복문에서 다음 문구를 읽고서 더욱 감동했다. “그대의 후손이 일어나, 시온의 여인들 가운데서 그대를 복되다 하리라.”

나는 그녀에 대한 나의 깊은 존경심이 바로 그 간단한 문장으로 실현되었음을 깨달았다. 테아 할머니의 사랑이 나의 죄책감을 치유했고, 내 마음은 조상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 일은 나에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의 약속이 성취된 첫 증거였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대적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7쪽)

나는 계속해서 조상을 찾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더 큰 힘을 얻고 내 삶이 더욱 분명해짐을 느낀다. 가족 역사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싸움을 돕는 동맹군을 얻은 것 같다. “우리[우리 조상들]와 함께 한 자가 그들[사탄의 추종자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열왕기하 6:16) 나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성전에 가져갈 수천 명의 가족의 이름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세심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경의를 갖는 시간도 가졌다. 나의 조상에 관한 지식으로 내 삶을 채웠을 때, 나는 강해졌고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

일상에서 기적 찾기

브리아나 콜 허버트,
앨릭스 휴기,
애스펜 스탠더
교회 잡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 맹인을 보게 하시는 구주. 불치병으로부터 치유된 여인.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지금껏 이처럼 광범위하거나 강력한 기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여길 만한 유일한 일들인가?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달린 에이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
- 영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 이전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
- 신앙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 당신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옥스 회장은 “많은 기적이 매일 우리 교회의 일과 우리 회원들의 생활에서 일어납니다.”라고 말했다.¹ 하지만 산을 옮기거나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본 적은 언제인가?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옥스 회장의 말씀은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을까?

Bible Dictionary(성경 사전)에

따르면, 기적이란 “신성하거나 영적인 권능이 드러나는 현상”이다.² 이 정의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기적에 눈을 떠 보자.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깃든 그분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된다. 하지만

기적이다. 매일 의학과 기술은 탁월하게 발전하고, 우리는 장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기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기적들도 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기적이다.



우리는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거나, 간증을 강화하거나,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길 때에도 그분의 영적인 권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기적들도 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 우리 몸의 수많은 부분들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숨쉬고, 달리고, 꿈꾸며, 먹을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한결같다. 때로 기적은 치유를 일으키거나, 위안을 주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효과만이 기적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고통이나 비극을 막아 내는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 즉 신앙을 강화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기적은 종종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이거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 Bible Dictionary(성경 사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이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책임, 회개, 신앙, 사랑 같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일어났다고 나온다.³

또한, 기적은 미대륙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표적처럼 이전의 계시를 확증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또한 가족 역사 사업과 선교 사업 등 당신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릇된 이유로 기적을 구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표적을 구할 때 생긴다.

우리가 기적의 공식에 신앙이라는 요소를 더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은 결코 진실하고 지속적인 개종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물몬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았으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순종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기나 돈을 얻기 위해, 복수를 피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기적을 구하는 것 또한 그릇된 일이다.

브리검 영 회장(1801~1877)은 이렇게 가르쳤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 난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기적들을 본 적이 있는가?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위로를 받았거나, 영적으로 성장했거나,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던 다른 경험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기적을 인식할 수 있을까?

기적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에 따라서만 일어난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따라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이더서 12:18)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우연의 일치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된다. 기적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의 일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기적의 크기나 시기 및

결과가 우리 신앙의 척도는 아니다. 두 가족이 있는데, 각 가족이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두 가족 모두 사랑하는 자녀가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두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

첫 번째 가족의 자녀는, 의사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완치되었다. 두 번째 가족의 자녀는 치료에 치료를 거듭하며 고통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온 가족은 절망보다는 평안과 위안에 휩싸인다.

첫 번째 가족이 반드시 두 번째 가족보다 더 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두 가족은 각자만의 기적을 받았고, 두 기적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 주는 방식의 한 부분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평범해 보이는 기적과 특별한 기적 둘 다를 행하신다. 각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극적인 치유를 얻고 형언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상기시켜 주는 일상의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로는 그저 그것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

주

1. Dallin H. Oaks, “Miracles,” *Ensign*, June 2001, 6.
2. Bible Dictionary, “Miracles.”
3. Bible Dictionary, “Miracles.”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254쪽.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

성전 건축과 유지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2018년 10월 연차 대회.



연차 대회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이 성스러운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연차 대회는 그분이 당신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 중 하나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인도에 따라 대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실제로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고대합니다.(교리와 성약 68:4) 우리는 주님께서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라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교리와 성약 1:38)

현대 사회의 소동과 혼란 가운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인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연차 대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중에는 심각한 걱정거리나 진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새로이 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장애물을 피할 능력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고대하며 참석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히 맞춰진 생각과 느낌이 떠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차 대회 메시지에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하늘의 인도가 담긴 보물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느끼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연차 대회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한다면 하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깃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구사함.



브리검 영 대학교 1학년 당시, 수업에
참석하기 전인 새벽 4시에 **화장실**
청소부로 일함.



닐 엘 앤더슨

장로



고등학생 때 37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학생회 회담**에
참가함.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함.



브리검 영
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됨.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농구하기를
즐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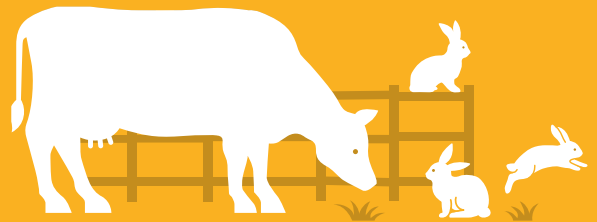


브리검 영
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를
졸업함.

1975년 3월
20일, 캐시
윌리엄스와
슬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함.



미국 아이다호주 포커텔로의
낙농장에서 자람.



농장에서 즐겨 했던 일 중 하나는
토끼 돌보기였음.

각 자녀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 자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감.



프랑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이후에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2009년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음.



1951년 8월 9일
유타주 로건에서
태어남.



슬하에 **4명의 자녀**와
17명의 손주를 둠.





청년 성인

성전에서 예배하기

성전 가먼트를 입고 여러분이 맺은
성전 성약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오는 축복에 관해 읽는다.

40

청소년

무엇이 옳은지 아는 방법

52, 55

일요일 공과

오늘날 기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60

연차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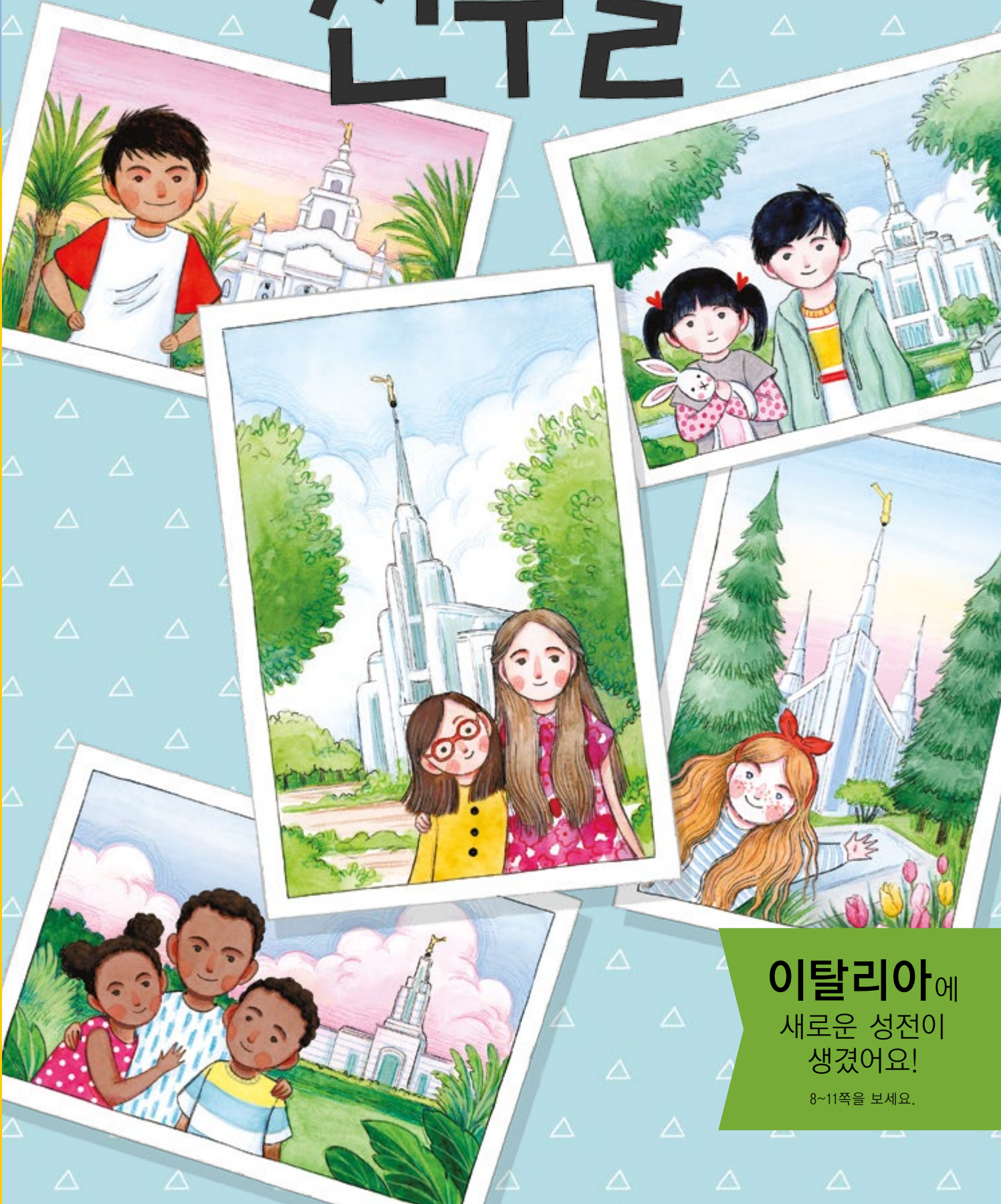
준비됐나요?

56,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친구들



이탈리아에
새로운 성전이
생겼어요!

8~11쪽을 보세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예수님처럼 되세요

어느 일요일에 저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 길을 따라가리
주님처럼 나도 모든 이웃 사랑하리라
그릇된 선택을 할 때마다
속삭이듯 들리는 작은 소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가르치심대로 하라”

아이들은 모두 의자 앞쪽에 걸터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눈에서 빛이 나오고 마음속 결심이 표정으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처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통해 당신처럼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

“완전한 모범”,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70~73쪽에서 발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친절 정원에 꽃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산상수훈

경 전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이라는 특별한 말씀(또는 "설교")이 실려 있어요. 아래에 나오는 경전 구절들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보세요. ●



마태복음 6:6~15



마태복음 5:44; 7:12



마태복음 5:14~16

마태복음 7:7~11



마태복음 5:2~11



기도의 힘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서로 기도하라”(야고보서 5:16)

아빠가 가족들을 모두 컴퓨터 앞으로 부르셨어요. 루시는 가지고 놀던 기린 장난감을 내려놓고 빨리 가 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온라인으로 할머니께 전화를 거는 시간일까요?

아빠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연차 대회 말씀을 좀 보여 주고 싶단다.”

루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어링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제일회장단에 계세요.

아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이어링 회장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는거죠, 아빠?” 남동생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아빠와 엄마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난 우리 지부 회장단도 계속 생각한단다. 알바레스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실 거야.”

루시는 알바레스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분들은 늘 루시에게 아주 친절하셨어요. 루시는 그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루시가 말했어요. “가족 기도를 할 때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자꾸나.”

다음 며칠 동안, 루시는 기도할 때마다 지부 회장단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매번 몇 초만 더 기도하면 되었어요. 참 쉬웠어요!

다음 일요일 성찬식 모임에서, 알바레스 회장님이 찬송가를 부르신 후에 일어서셨어요. 그런 다음 회장님이 하신 말에 루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지부 회장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로부터 오는 아주 실제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껴요.”

**로레나 에두아르다 안, 5세,
브라질 상파울루**

감사합니다!”

루시는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를 쳐다봤어요. 데이비드도 웃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루시는 정말 기뻐서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루시는 몸을 숙여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루시가 속삭였어요. “알바레스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루시는 팔짝팔짝 뛰고 싶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교회가 끝난 뒤, 루시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신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니 놀랍지 않니?”

루시는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루시와 데이비드는 팔짝팔짝 뛰면서 길을 내려갔고, 엄마와 아빠는 뒤에서 따라오셨어요. 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가족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기도만 했는데도 말이예요!

그날 밤, 루시는 기도할 준비를 했어요. 루시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한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 생각했어요. 아마 루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루시는 팔짱을 끼고 머리를 숙였어요. 루시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동안

4월 연차 대회를 잘 들으면서 다음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 색칠해 보세요.



고요히 기도할 때면 가까이 계신 주

조용하게 ♩ = 48-58

작사 및 작곡: 셸리 디포드

1. 밤 이 나 낮 이 나 모 든 순 간 하 나 님 아 버 지 가
 2. 하 나 님 축 복 에 감 사 할 때 내 감 사 에 미 소 보
 3. 무 료 꿇 고 구 하 는 기 도 도 맘 으 로 한 기 도 도

까 이 계 셔 그 이 름 부 르 먼 결 에 오 시 리
 내 주 세 네 나 외 로 워 친 구 가 필 요 한 날
 들 으 시 리 포 근 한 사 랑 과 분 명 한 약 속

To Coda ⊕
 고 요 히 기 도 할 때 면 - 가 까 이 계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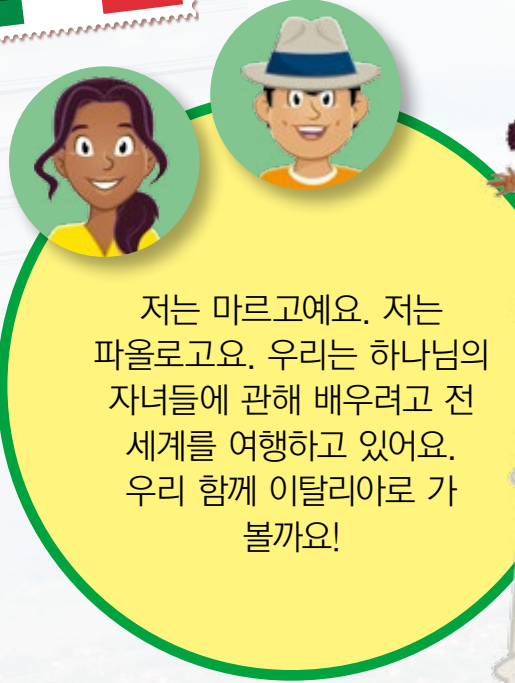
1. 주 주 나 아 버 지 께 기 도 하
 2. 주 주 나 아 버 지 께 기 도 하

네 언 제 나 어 디 나 언 제 든 내 가 부 르 면

D.C. al Coda
 가 까 이 계 신 주

⊕ CODA
 가 - 까 이 계 신 주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탈리아예요!



저는 마르고예요. 저는 파올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배우려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탈리아로 가 볼까요!

이탈리아는 남유럽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는 장화처럼 생겼어요!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살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Sono un figlio di Dio.*(소노 운 필리오 디 디오) 이 소녀는 이탈리아어로 몰몬경을 읽고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 교회에 다녀요. 그들이 믿는 것 중에 우리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주로 가족과 함께 저녁 산책(*passeggiata*)을 해요. 멋진 옷 입고 함께 광장을 거니는 것이죠. 광장에서 젤라토를 사먹기도 하는데, 젤라토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이에요. 맛있어요!



이탈리아의 어린이들은 점심 시간(*pausa pranzo*)이 되면 주로 학교에서 집으로 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요. 보통 파스타나 밥에 고기와 야채를 곁들여서 먹어요.

이탈리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이번 달에 로마 성전이 문을 열어요! 이 성전 발표는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있었어요. 이 성전은 이탈리아의 첫 번째 성전이 될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왔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뒤표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선지자들을 인도하심을 알아요. 예수님에 관해 더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저는 복음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물문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로렌조 비, 7세,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 예수님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기분도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는 성전까지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50분 만에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제가 12살이 되면, 저는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올리비아 지, 8세, 이탈리아 라치오주

이탈리아 탐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Ciao!*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거야”(어린이 노래책, 99쪽)

쥘 엘레와 미켈레는 길 건너편의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철근과 시멘트 층이 보였어요.

쥘엘레가 말했어요. “아직은 별로 성전 같지 않은걸.”

미켈레가 대답했어요. “언젠간 성전처럼 보일 거야.”

이들 형제가 이탈리아 로마 성전이 지어지는 곳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가족이 성전에 가려면 멀리 스위스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성전은 집에서 겨우 30분 거리에 있어요!

미켈레와 쥘엘레는 커다란 노란색 트럭들이 흙더미를 치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미켈레가 건물의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에 탑이

로마 성전 짓는 것을 보아요



세워질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던 조엘레는 갑자기 외쳤어요. “저기 봐! 아빠가 오고 계셔.” 아빠는 평소에 입으시는 작업복 차림에 흰색 안전모를 쓰고 계셨죠. 아빠는 성전에서 전기 공학자로 일했어요. 이 형제들은 아빠에게서 매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아빠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상이 도착했다고 말해 주셨어요. 또 하루는 침례반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죠.

그날 밤, 미켈레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어요. 미켈레는 성전에 관해 기도할 때마다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몇 주가 흘렀어요. 곡선이었던 성전 벽면은 단단한 돌로 덮였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탑 두 개가 세워졌어요. 근처에는 작은 방문자 센터가 지어졌어요. 조엘레와 미켈레는 가끔씩 그곳으로 가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랄 만큼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모로나이 천사상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는 걸 보러 갈까?” 엄마가 물으셨어요. 건설 작업자들의 모든 가족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초대되었어요.

조엘레와 미켈레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하얀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땀어요. 그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성전 주위를 거닐었어요. 황금색 모로나이 천사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천사상은 엄청 컸어요!

그런 후에 작업자들이 천사상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조엘레는 거대한 크레인이 조심스럽게 모로나이 천사를 탑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비디오를 찍는 드론이 웅웅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었죠!

조엘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방문하여 교회에 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생각했어요.

조엘레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이제 성전 같아 보여.” 미켈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형제는 행복했어요. 곧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기대됐어요!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의 간증도 함께 자라났어요. ●

이탈리아 로마 성전은 3월 10~12일에 헌납될 거예요!





꿈

이번 주에 사랑을
보이기 위해 할 일을
한 가지 말한다.

10초 동안 하트를 최대한
많이 그린다.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든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였던 경험을 말한다.

“서로 사랑해”(찬송가,
193장)를 부른다.

이번 주에 사랑을
보이기 위해 할 일을
한 가지 말한다.

누군가를 위해
그림을 그린다.

누군가를
껴안아 준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찬송가(2)를 부른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Our Savior’s Love,”
(Hymns, no. 113)를
부른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멋진
글을 쓴다.

활짝 미소를
짓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러시아를 방문하다

사도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성역을
배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칩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과 해리엇 우흐트도르프 자매님은 러시아에 사는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사도가 되기 전에 비행기 기장으로서 러시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이고,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넬슨 회장님은 러시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장로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장로님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모스크바

그 다음으로 장로님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큰 도시로 가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들은 "자원봉사자들"로 불리며, 그들은 매일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찾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집으로 곧 귀환할 자원봉사자들 몇 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성전이 지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러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이 지어질 날을 위해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함

언젠가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방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두세요.



패밀리 트리에서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을 찾아보세요.



성전에 다녀온 사람과 성전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매티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보세요

조던 몬슨 라이트
실화에 근거함

16 살이던 마르타(매티) 휴즈는 선지자의 발표를 듣고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티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브리감 영 회장님이 이제 여성에게 의사가 되라고 권유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몇몇 의과 대학원에서 여성을 받아들여, 이제 여성도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매티는 의과 대학원에 가기 전에 많은 돈을 모아야 했어요. 또 대학 학위도 받아야 했고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었어요. 또한 어렵기도 하겠지요.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티는 손수레를 끌고 유타로 오던 중에 죽은 여동생 애니를 생각했어요. 여동생이 아플 때 주위엔 의사가 없었어요. 그 후엔 매티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지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약 매티가 의사가 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매티는 신앙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선지자는 여성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고, 매티는 자신이 그중 하나가 되길 바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의과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매티는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녀는 신문 식자공으로 일했어요. 그녀는 신문을 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단어의 글자 하나하나를 올바른 순서대로 세심하게 배열해야



했어요. 일이 끝나면 매티는 의과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매티는 일과 직장과 학교를 왔다갔다 하느라 날마다 10킬로미터를 걸었어요! 보통 신는 신발로는 진흙탕 위를 걸을 수가 없어서 매티는 무거운 남성용 부츠를 신고 다녔어요. 걷는



대신 노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기 위해 한푼이라도 아꼈어요.

매티는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매티는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 것임을 알았지만, 그분들은 다른 자녀들도 돌봐야 했어요. 그녀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매티는 모금 행사를 열기로 하고는 친구들과 와드 회원들에게 남는 돈이 있다면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어요. 영 회장님의 요청을 따르기로 한 여성은 매티까지 해서 모두 세 명 뿐이었는데, 그들은 매티가 의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모금 활동이 끝난 뒤, 매티는 의과 대학원에 가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그녀는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2년 뒤, 매티는 학위를 받기 위해 졸업식 단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마침내 매티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 기쁨은 난생처음이었어요.

그녀는 그곳에 모인 낯선 이들이 자신을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고향의 가족이나 친구는 그곳에 오지 못했지만, 매티는 그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곧 매티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었어요.

유타로 돌아간 매티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상호부조회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로키 산맥 근처에서 지내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또한 의사라는 직업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매티는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 일을 도왔고, 출산법에 관한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의사가 되는 것은 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티를 사랑하셨고, 그녀를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평생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바쳤어요. ●

글쓴이는 미국 미시간주에 살아요.



마르타 “매티” 휴즈 캐논(1857~1932)은 개척자이자 의사이며 정치인이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열심히 일했다.



마시모 데 페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부모님이 주신 교훈



제가 18살이었을 때, 저는 아버지께 선교사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안 돼, 너무 큰 돈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는 제게 “정말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 중에도, 어머니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을 때,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생에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분들은 제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배운 교훈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교사,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여려고만 한다면,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저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가족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9살이던 어느 날, 선교사 두 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형 알베르토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선교사들을 계속 만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살이었고, 알베르토 형은 11살이었습니다.

어린이 발표



우리는 초등학교의 창립을 기념했어요. 그날 우리는 가족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장기 자랑을 했어요. 각 가족은 물론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 발표했어요.

초등학교 활동, 콜롬비아 칼리 콜리마 스테이크

저의 침례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침례를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시도록 엄마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빠는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침례를 받았고, 지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하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더 배울수록 제 간증은 날마다 커져요.



에이미 브이, 9세, 에콰도르 엘 오로



제 남동생과 여동생이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동생들에게 알려 주었어요. 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테반 케이, 10세, 잠비아 루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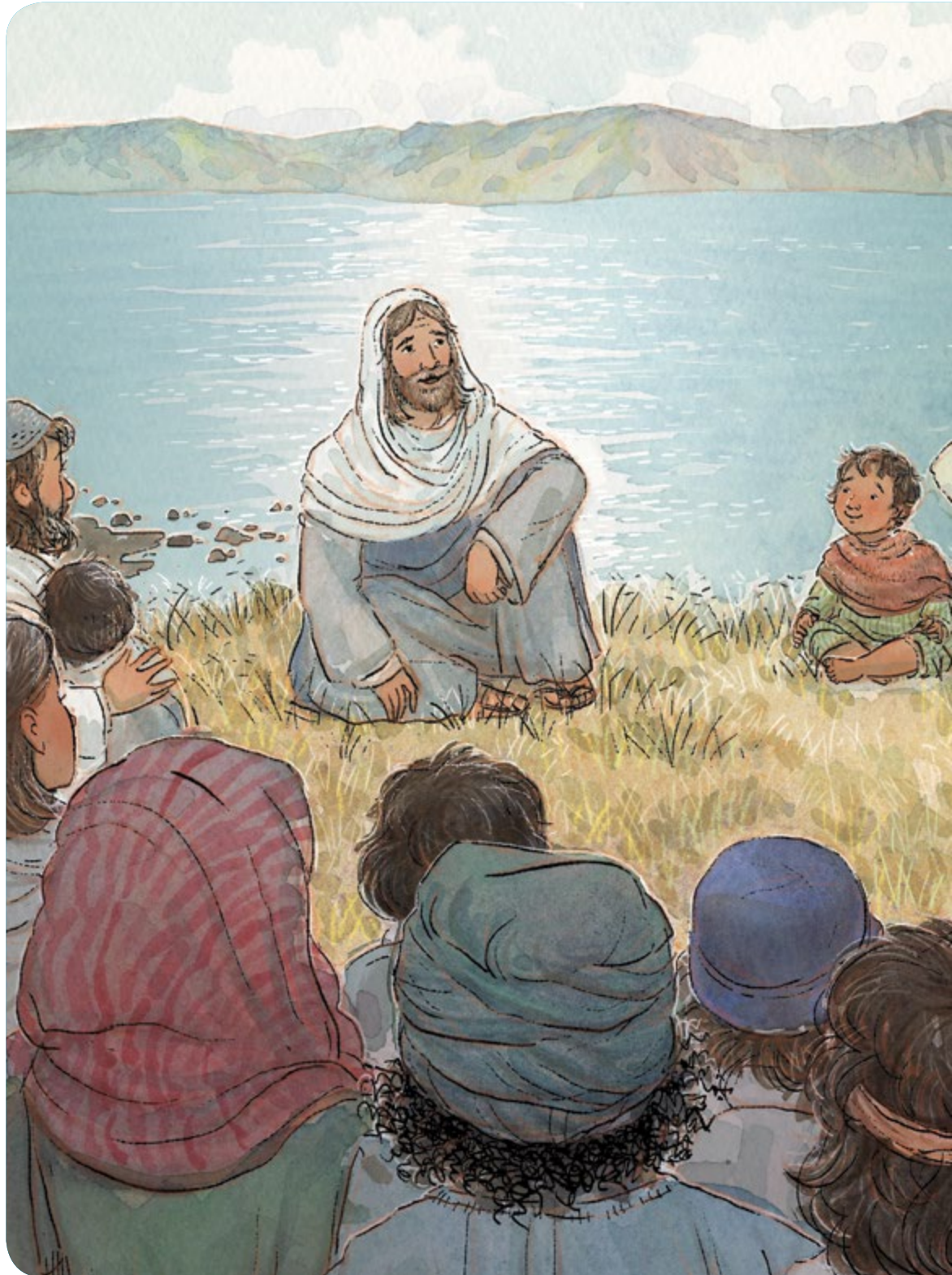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신앙개조, 교회 지도자들, 물론경에 나오는 기록들, 그리고 리하이의 꿈에 관해 배웠어요.

초등학교 활동, 스페인 산티아고 지방부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근처에
있는 동산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또 좋은
모범이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도
가르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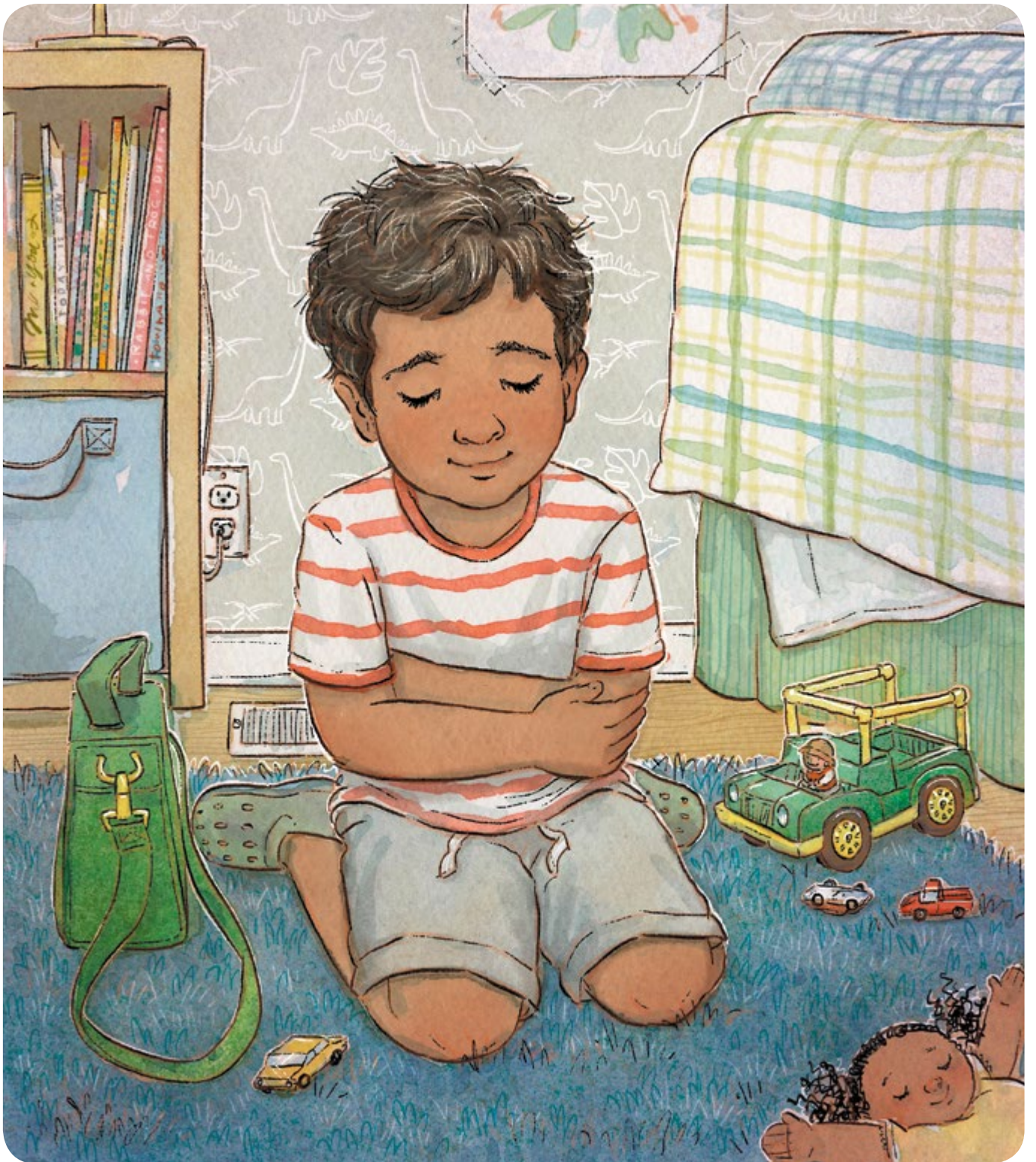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6장 5~13절을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귀중한 기술이며,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삽화를 활용하십시오. 자녀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그 부분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 주면서 자녀에게 듣고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 자녀들이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면 그 뜻을 설명해 주고, 그 단어를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연습해 봅니다.
- 자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루시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뭐라고 가르치셨지?” “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 이야기를 마치면 내용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 달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은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했습니까?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New Friend

50 E. North Temple Street, Room 239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liahona@ldschurch.org

사랑을 전하며,
친구들

목 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되세요
- 친3 산상수훈
- 친4 기도의 힘
- 친6 재미있는 활동: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동안
- 친7 음악: 고요히 기도할 때면 가까이 계신 주
- 친8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탈리아예요!
- 친10 로마 성전 짓는 것을 보아요
- 친12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수많은 방법
- 친14 전 세계의 사도들: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러시아를 방문하다
- 친16 용감한 모범: 매티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보세요
- 친18 부모님이 주신 교훈
- 친19 어린이 발표
- 친20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 친23 색칠하기: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나탈리 흡스